

참여연구원 칼럼

지배하려는 마음, 벗어나려는 마음

엄 현 숙(북한대학원대학교)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보이는 것일까? 전해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직접적인 경험일까? 눈앞의 이윤일까? 갈등하는 마음의 집합으로 나타난 장벽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가? 이들에게 평화는 무엇일까?

2019년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나는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연수에 함께 하여 북아일랜드에 다녀왔다. 그즈음 뉴스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언급되고 그 갈등의 현장에 직접 가본다는 것에 나는 잔뜩 들떠 있었다. 하지만 도착 후 첫째 날, 둘째 날, 일정이 거듭될수록 마음 한구석에 북아일랜드의 잔뜩 찌푸린 하늘만큼이나 고민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가정과 마을에서 학교로, 대학과 사회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재생산하는 벨파스트(Belfast) 신-구교도 거주지역의 일상은 직접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다. 벨파스트의 'R-City'와 'Peace Well' 방문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질문을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장기화한 갈등은 분쟁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게 하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한다. 'R-City'에서

우리가 만나본 두 청년은 15살 되는 해 'R-City' 교육프로그램을 접하기 전만 해도 자기가 나서 자란 지역이 전부이고 이곳을 떠날 생각은 해 본 적 없었다. 그들의 시각에서 눈 들어 주변을 살펴보면 증오를 대물림해 주는 어른들이 있다. 그 어른들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또한, 세력을 나타내는 문화적 상징물이 보인다. 그 속에는 상대가 뿔난 악마라는 편견들이 잠재되어 있다. 주거지 바로 옆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자리한다. 포래들끼리도 폭력과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들에 노출되어 있다. 신-구교도의 주거환경은 분리되어 있었고 증오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폭력적인 행동과 삶이 아이들의 롤 모델이다. 서로를 증오하고 혐오하도록 하는 심리적 환경에서 다음 세대는 경험도 안 한 것을 바탕으로, 전해 받은 것을 바탕으로 미움과 증오를 키워가고 있었다.

신-구교도 갈등 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높은 벽('Peace Well')을 마주했을 때 느낌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평화협정이 있는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이 지역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높이 세워져 있는 벽은 우리에게 서로의 사는 모습이 보이는 것

참여연구원 칼럼

조차도 싫어함을 직관적으로 알게 한다. 열린 세상에서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움에도 그들은 자신을 벽 안에 가두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안정을 찾는다.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었다. 낙후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미래가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동기부여조차 안 되어 있다. 이토록 분열된 사회에서 성장의 기회가 없음에도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갈등 지역의 청소년들이 조심스럽지만, 용기를 내어 만나고 있었다. 그렇게 만나볼 기회를 'R-City'가 주고 있었다.

'R-City'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신-구교도 지역 청소년들이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구교도 출신 청소년 활동가가 두 동네를 갈라놓고 있는 접점에 2014년 세운 카페이자 교육 장소이다. 신-구교도 거주지가 평화의 벽으로 갈라져 살고 있으나 이곳만은 도시 구조상 벽이 없다. 이러한 접점에 있는 'R-City'에 신-구교도 청소년들은 각자의 거주지로 향한 문을 통해서만 출입한다. 그 한 쪽의 문을 통해 이 공간에 들어서면 나를 반대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조심스럽기까지 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상대방을 만나려는 용기를 가진 청소년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지 늘 고민하는 손길이 있어 새로운 접근법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세뇌당하면서 아도인 너머에는 삶이 없다고만 생각했던 한 청년이,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그 경험이 쌓여 대학까지 갈 수 있었다. 분쟁 시기 유산들을 유입시키는 어른들로 인해 가톨릭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른으로 자랐을 청소년이 부모의 반대를 뿌리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평화활동가 포트릭은 평화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우리는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가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져 본 것은 만남이고 용기이고, 어떤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행동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온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갈등을 극복하려는 용기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새로운 세상에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곳, 그 용기에 힘을 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그래서 필요하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서기까지 인내와 수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몇 번의 만남으로 그간의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의 비전과 헌신,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막 연수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들어섰는데 북아일랜드 데리(Derry)에서 차량폭탄테러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여전히 북아일랜드는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면서.

집단문화서 살아남는 행복한 ‘개인주의자’

문유석 판사 책 <개인주의자 선언> “주변 살피는 넉넉함 있어야”

최 종 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고, 소속감을 갖는 일 모두 행복과 관련 되어 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될 일도 안 된다. 처음 본 사람과 대화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때가 그렇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문유석 판사는 <개인주의자 선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필요하다. 서열-집단문화가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혼자 다르게 생각하기란 낯설고 어렵다. 싫다고 떠들면 나만 피곤해진다. 한 예로, 사람들은 남들과 비슷한 나이에 대학을 가고, 군대를 다녀와 취업을 한다. 몇 년 후 결혼과 출산이라는 시기를 맞는다. 어느 사회든 나름의 생애주기가 있다고 하지

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 강박증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사회는 사람들에게 나이에 걸맞은 행동을 요구한다. ‘조용히 있어도 중간은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튀는 행동은 사회부적응자로 가는 지름길에 가깝다.

고등학생 시절 반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다. 말수가 적었던 그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내용은 모두 받아 적었다. 난해한 수학 문제도 막힘없이 풀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쉬는 시간에도 복습과 예습을 하느라 늘 바빴다. 졸업할 즈음 서울의 어느 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아마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개인주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철저히 ‘개인주의자’였다. 남들에게 피해주길 싫어했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다.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귀를 기울였다. 집단문화가 심한 한국사회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었지만 내가 본 그는 당당했다.

“가능한 한 남에게 폐나 끼치지 말자. 그런 한도 내에서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며 최대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자. 인생을 즐기되,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도 좀 잘해주자.<개인주의자 선언>, 17쪽”

마음에 대한 믿음을 문제화하기 - 몸의 은유와 마음의 삼각형

문화와 사회 제26권 제3호, 2018



박 세 진(서울대학교)

‘마음’이라는 일상용어의 사회학적 함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근자의 시도들에 대한 재고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인간의 사회적 삶 속에 다양한 형태로 스며들어 있는 마음의 힘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논문은 마음 개념의 보편적 생산을 ‘몸의 은유’라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려는 사고실험에서 출발해, 마음의 역능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는 여러 방식들을 세 가지 마음의 범주-주체가 가진 ‘개별적 마음’, 주체를 포괄하는 ‘집합적 마음’, 흔히 영적

존재라고 불리는 ‘몸 없는 마음’-를 준거로 살펴본다. 각각의 범주하에서 마음은 공히 세계 안에서 주체의 존재와 운명을 좌우하는 ‘본질-원인’으로 제시되기에, 마음의 범주들에 입각한 인간의 자기이해와 세계이해의 성격에 대한 비판적 논의 또한 수행된다. 결론에서는 마음의 ‘믿음’과 사회의 ‘인식’ 사이의 근본적인 배제 관계를 환기하면서, 전자의 매혹에서 벗어나 후자의 생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가능한 경로를 ‘사회관계’의 범주를 중심에 놓고 스케치한다.

연구단 동정

■ 본 연구단은 1월 24~26일 간 일본 국제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 주일본한국대사관 공식만찬에 참석하였고 둘째 날 릿교대, 재일조선인사회과학자협의회와 공동주최로 “한/조선반도 변화와 재외조선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논의, 재외 조선인의 삶에 대한 시각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마음통합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지난 1월 28일 본 연구단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추상미 감독님과 일본 릿교대 이향진 교수님을 모시고 필름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관객들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무관심의 그늘 뒤에 가려져있던 한국전쟁 고아문제를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쟁고아들을 보살폈던 폴란드인과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며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의지하는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 마음 속 상처를 돌아보고, 연대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구단 동정

실험과 실천

■ 지난 두 차례 북토크는 책방이음에서 남북문학예술연구회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1월 30일 북토크에서는 이지순 (통일연구원) 오태호 (경희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북토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의 토크에서는 남북문학예술연구회의 서적 '3대 세습과 청년지도자의 발걸음' 김정은의 집권 직후에 발생한 북한 문학예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전의 통치자들과 차별되는 김정은 시기 문예만의 특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2월 14일 북토크 “전쟁과 북한 문화예술의 행방”의 저자들인 유임하(한국체대), 김은정(한국외대), 김민선(동국대) 등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전쟁을 북한이 어떻게 사유하고 있고, 어떻게 계승하는지의 문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1950년대 당시 북한문학과 예술에서 있었던 북한주민들의 분응에 주목하여 담고자 하였습니다. 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가진 전쟁의 트라우마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구단 동정

■ 지난 2월 19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본 연구단의 연구보조원 김형완, 강초롱, 김경렬 선생님의 학위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세분의 논문을 소개합니다.



■ 논문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응과 귀인 양식- 석사 20기 김경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응과 귀인 양식의 관계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귀인 (Attribution)이란 본인 혹은 타인의 행동 배경을 추론하거나 사건의 원인을 찾는 인지적 과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귀인 양식을 측정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을 통해 이들의 마음가짐과 심리상태, 감정 등이 추론 가능하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우울과 같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귀인 양식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발견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문화와 남한 문화의 유지 및 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자부심 등과 관련이 높은 귀인 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은 우울에 취약한 병리적 집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응 과정에 따라 인지능력이 변화하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남한주민 태도 연구- 석사 20기 강초롱

본 연구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라는 이벤트를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았다. 요인 분석을 위하여 남한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한주민이 가지는 남북한 공동입장에 대한 태도, 남북한 단일팀에 대한 태도 및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북한주민에 대한 정적정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남북한 공동입장, 남북한 단일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때 북한주민에 대한 정서가 매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남한주민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정적정서를 고양시키고 부정정서와 연민을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변화하는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정서가 남북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를 예측하는 단서임을 시사한다.

■ 북한 소묘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 20기 김형완

본 연구는 북한의 미술사에서 소묘의 기능과 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었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본래 북한의 미술에서 소묘는 중요한 훈련수단이자 기법으로 여겨졌지만, 독립적인 장르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이는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며 북한의 미술은 채색화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김일성과 조선미술가동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05년에는 김정일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소묘는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로 급격히 격상 되었다. 그때부터 소묘는 '전국소묘축전'이라는 정례화된 행사를 통해 독립된 장르로서 대중미술의 역할을 맡았으며, 현재 김정은 시기에 그 기능과 위상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소묘는 정치적 요인에 따라 그 기능과 위상이 바뀌어왔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일정

북한문학예술의 지형도 6



전후 북한 문학예술의 미적 토대와 문화적 재편
남북문학예술연구원 편



미적 토대와 문화적 재편

북한문학예술의 지형도 6

역락

◀ 본 연구단과 역사책방, 이음책방과 공동 주최해온 “지금 여기, 남북의 마을 알기” 북토크 시리즈의 마지막 모임이 대학로 이음책방에서 2월 26일(화) 늦은 7:30에 진행됩니다. 홍지석(단국대), 김태경(북한대학원대) 박사님과 함께 하는 “전후 북한 문학예술의 미적 토대와 문화적 재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연구단 정기 콜로키움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3/7(목), 한준성(한양대 평화연구소) 박사님을 초청하여 환대지수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민사회에 대비한 한국사회 이주민 환대 지수 지표체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11(목), 김성우(국민대 테크노디자인 대학원) 교수님을 초대하여 북한 디자인의 현황과 디자인에 특화된 통일 준비를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SSK 정기 콜로키움

"이주민 환대지수 (hospitality index) 지표체계 조정과 시계열 분석"

2019년 3월 7일 목요일 16:30 대회의실

한준성 연구교수 ★

"북한 디자인의 현황 및 통일 디자인의 향방"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16:30 대회의실

김성우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NRF 한국연구재단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인터뷰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9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전망’ 간담회 자리에서 “남북 관계가 진전될 경우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분야 교류 사업이 의외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빨리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영상자료 및 보도물 교류는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어서 복원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한 뒤 “언론사로서는 다양한 북한 영상자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교류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보수 성향 종합편성채널에서 북한 영상자료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며 “정파를 떠나 교류 필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우영, “아이린은 또 다시 평양에 갈 수 있을까” / 미디어오늘 2019.01.22.

북한 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돈주들이 없으면 국가 건설 과제 수행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돈주는 특히 북한에서 구할 수 없거나 부족한 건축 자재의 조달을 책임진다. “돈주의 자본력과 중국으로부터 신속한 자재 조달 능력이 없다면 공기 단축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양문수 교수 등이 2015년 탈북민을 대상으로 국영업체에 개인(돈주)이 투자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비율을 조사해보니 식당 64.1%, 상점 56.2%, 지방산업공장 26.2%, 중앙공업공장 21.7%였다. 그만큼 ‘타인 노동을 부리는 개인 사업자’의 성장, 곧 사실상의 ‘기업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양문수 교수는 돈주들과 손잡고 빠르게 변신하는 이런 국영기업들을 “붉은 모자’ 또는 ‘사회주의 모자’를 쓴 기업”이라 불렀다..

양문수, “‘82층 아파트’ 북 여명거리 1년만에 완공…비결은 ‘돈주’” / 한겨레 2019.01.27.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평화협정은 정권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구갑우, “김정은이 베트남서 원하는 건… 종전선언보다 제재완화” / 뉴데일리 2019.02.12.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주민이 176만명이라는 것은 대전광역시 인구와 비슷할 정도로 현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또 앞으로 외국인 비중이 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문화 인구와 가정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 사회는 경기침체 우려와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반(反)다문화 정서가 강해지고 있어 사회 문제로 커질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양계민, “‘이민자 이웃 싫다’…순혈주의에 숨막힌 ‘또 하나의 한국인’” / 서울경제 2019.01.13.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이 선대와 달리 '개인'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수단으로 '국가'를 띄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세대 사고 방식'과 연관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개인에 불과한 수령에 대한 충성을 주장한 선대의 낡은 마인드와 달리 외국 교육을 받고 젊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북한체제를 떠받쳐온 수령에 대한 강조보다는 국가에 대한 명분 있는 충성으로 결속을 노린다는 것이다.

이우영, “北, '수령' 보다 '국가' 띄우기…시장 경험 주민 의식변화 반영”/ 한국경제 2019.01.28.

뉴몰든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그 부분이다. 우리 사회를 보면 남북 평화라든가 관계맺음의 담론을 다원주의나 다문화 수용하는 담론과 전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과 우리 사회에서 차별에 반대하고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분리돼 있지 않다. 뉴몰든 북한난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여기는 다원성이 강한 사회다. 그래서 한국보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살기가 편하다’는 것이다.

이수정,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영국 마을 ‘뉴몰든’서 그려 본 ‘작은 남북’”/ 경향신문 2019.02.21.

칼럼

결국 폭로의 진위는 사회가 판단하게 된다. 촛불로 만들어진 사회라면 그 정도의 정화 능력은 있을 것이다. 부당한 폭로는 분명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처벌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폭로 내용, 대상, 기준 등은 세밀하게 조정될 것이다. 미리 나서 입을 다물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지금 기억할 것은 폭로자 대부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과 폭로의 대상자는 어떤 의미에서건 권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다. 이 자명한 원칙으로 돌아가 폭로자와 피폭로자 모두 폭로라는 행동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금 되돌아볼 일이다.

김성경, “[야! 한국 사회] 폭로의 효과”/ 한겨레 2019.02.06.

칼럼 연재: 책의 마음, 마음의 책



신이 있어야 한다: 슬라보예 지젝의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 읽기(1)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신은 존재하는가. 오래된, 그러나 계속되는 질문이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위대한 설계』)과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만들어진 신』)는 신이 없음을 증명하려 한다. 반면, 맑스주의적 인문학자 테리 이글턴(『신을 옹호한다』)은 무신론을 비판한다. 이들의 저서는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오를 정도다. 신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신이 있다고 믿거나,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을 믿거나 또는 믿는 체하는, 개인, 집단, 국가가 실재한다. 신은 이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은 왜 존재하는가, 신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로 질문을 바꿀 수 있다. 현재와 다른 세계,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 그 질문의 답일 수 있다. ‘공산주의’가 문 앞에 와있다고 주장하는 지젝도 이 인간의 열망에 전략적으로 개입한다:

기독교 근본주의적 종말주의가 내용상 가장 우스꽝스럽게도, 또 위험하게 여겨지기는 하나 그래도 그것이 ‘천년왕국설’의 급진적 해방논리에 가장 근접한 종류다. 그러므로 그것과 계속적 생태주의 사이의 더욱 긴밀한 접촉을 도모하고 그를 통해 멸망의 위협을 급진적인 해방적 재생의 기회로 사고할 것이 과제로 남는다.

지젝의 세속종교적 전략이다.

철학자 알랭 바디우처럼, 지젝도 사도 바울을 불러온다: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구별이 없다. 오직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의 적들이 있을 뿐이다! 아니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오직 해방을 위해 싸우는 자들과 그들의 반동적 적대자들, 민중과 민중의 적들이 있을 뿐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차이의 정체성들을 ‘하나’로 묶었듯, 지젝은, 2001년 9-11을 비극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희극으로 ‘사건화’하려 한다. 지젝은, 2008년의 금융위기의 원인을, 세계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아니라 느슨한 법적 규제나 거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탓으로 돌리려는 이데올로기적 서사를 비판한다. 현존했던 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회고적 주장처럼, ‘진정한’ 자본주의로부터의 이탈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생각하려는, 역사의 종언을 외치는 자본주의 유토피아론자들의 이데올로기를 해부한다. 지젝에게, 공기, 흙, 물, 불과 더불어 자연의 다섯 번째 힘을 구성하는 돈의 절대명령, “은행을 구하라”는 ‘사회주의적 정책’은, “빈자가 아닌 부자를, 돈을 빌리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자”를 도울 뿐이다.

칼럼 연재

“잘 가시오 사회주의씨”를 외치는 지젝에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생태적 파국의 위협, 디지털 통제의 위험, 인간을 조작가능한 기계로 만드는 자본주의의 수정에는 동의하면서 “은행을 구하라,” 라는 명령에는 복종하지만,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배제된 자들”이 “포함된 자들”과 적대하는 지점을 외면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변종일 뿐이다. 지젝이 제시하는 ‘공산주의’는, “시장과 국가라는 틀의 한계를 돌파해” 가는 또 다른 세계다. 지젝의 신은 ‘공산주의’다:

파국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출 때까지 행동을 미룬다면 그러한 지식을 획득했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행위가 의존하는 확실성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다. 참된 행위는 그에 관해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투명한 상황 속의 전략적 개입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참된 행위가 지식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다.

종말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과거 속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삼입”할 수 있다는 지젝의 논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라고 물을 때 지식이 아닌 신념을 내세우는 지젝의 담론에서, 신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신은 있어야 한다는 답을 듣게 된다.

그러나 지젝의 담론이 물질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신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파레토의 법칙처럼 20 대 80의 사회지만 20이 80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답이 제 발로 도축에 걸어 들어가도록 설득할 수 있는데 실로 누가 노골적

억압을 필요로 한단 말인가”라는 지젝의 언명처럼, 80은 지젝의 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을 호명하기 위해 신은 있어야 하지만, 그 신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멍청아, 그건 이데올로기야”를 외치는 ‘사도 지젝’이 사도 바울처럼, 차이의 정체성들을 넘어서서 하나의 굵은 선으로 나누어지는 정체성의 대립구도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